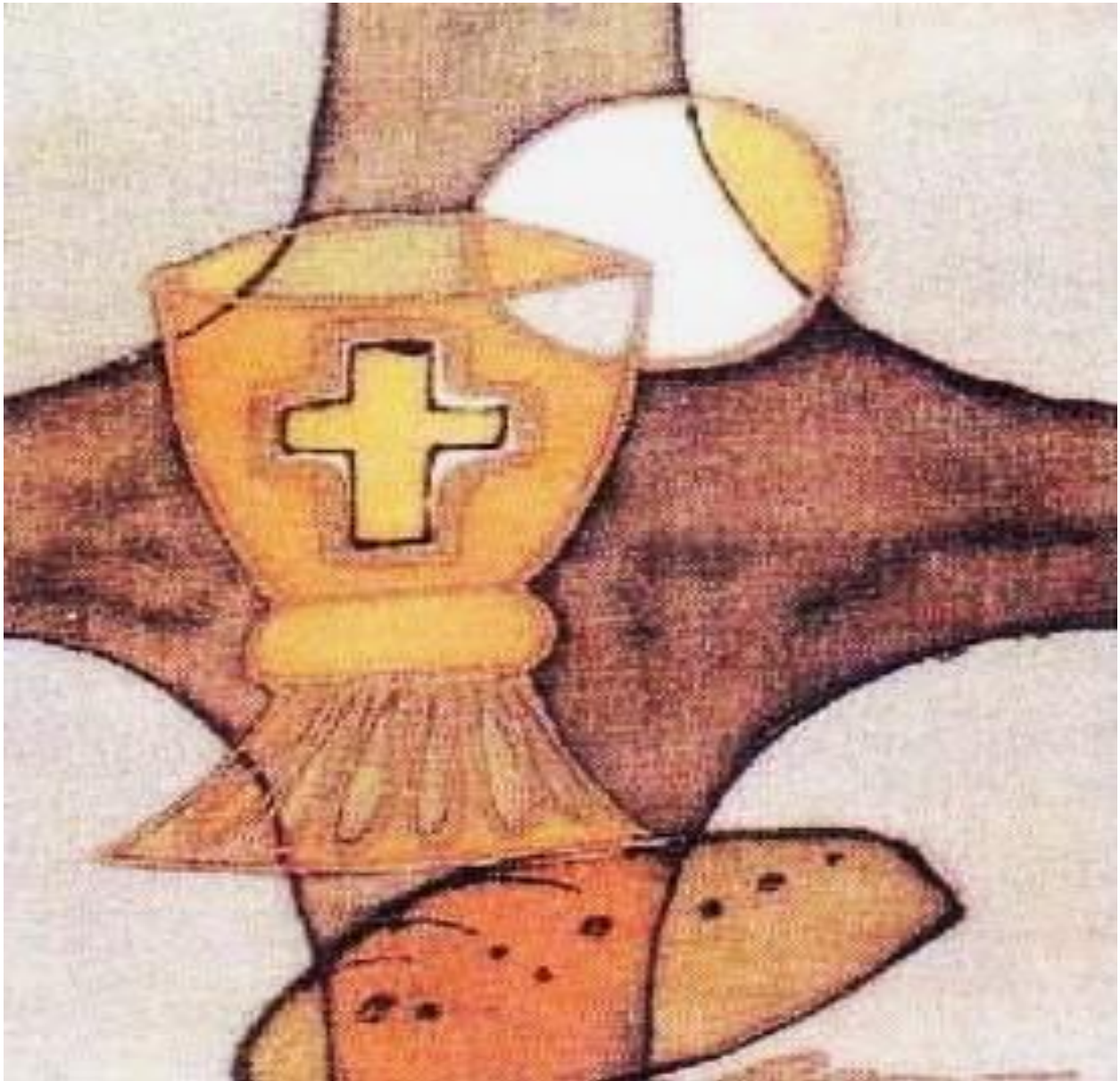


울림과 잠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인: 오승수 시몬 주임신부 | 편집: 소공동체지 편집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23년 6월 11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 6,55)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요한 6,58)



1. 시작 기도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 성가 163 장 ‘생명의 성체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163

생명의 성체여

성체

보통으로 *p* John David Edwards

1. 거룩한 성체여 주님의 몸과 피영
 2. 거룩한 성체여 주신 비의의 성사여 주
 3. 거룩한 성체여 기쁨의의 샘이여 평
 4. 거룩한 성체여 구원의 길 이여 회

mf

원한 생명 을 우 리 계 주 시 네 우
 예수 생명 을 한 리 계 주 시 네 우
 화와 과 사 랑 을 우 리 계 주 시 네 우
 망과 사 랑 을 우 리 계 주 시 네 우

리 와 함 께 계 시 어 새 생 명 주 시
 리 의 형 제 만 나 서 주 안 에 하 나
 리 의 삼 을 이 나 과 나 구 누 게 하
 리 도 주 님 본 옷 반 아 구 원 의 길
 로

p

옵 소 서 거 룩 하 신 예 수 성 체
 되 리 라 거 룩 하 신 예 수 성 체
 가 리 서 거 룩 하 신 예 수 성 체
 소 리 서 거 룩 하 신 예 수 성 체

- 예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아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로마 10,8)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주교회의 성경위원회)

2.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 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 말씀

- 한 분이 제1독서 (신명기 8, 2-3.14-16)와 제2독서 (1 코린토 10, 16-17), 그리고 복음 말씀 (요한 6, 51-58)을 읽어주십시오. (또는 한 절 혹은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신명기 8, 2-3)

2 “너희는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3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될 유혹

(신명기 8, 14-16)

14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15 그분은 불 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16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 주신 분이시다.” 그것은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뒷날에 너희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성찬례와 이교 제사

(1코린 10, 16-17)

16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빵

(요한 6, 51-58)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0초)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또는 한 절 혹은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단어 하나 / 최대 문장 하나)을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4.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5. 실천 사항

- 우리 반의 실천 사항을 함께 정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예수 성심 성월을 맞아 예수님과 대화하는 성체 조배 시간 가지기
-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미 기도드리기
- 방학 동안 자녀들의 미사 참여 독려하기

6. 지난달 실천 사항 나누기

- 지난달 우리 반 실천 사항에 대한 각자의 생활을 나눕니다.

7.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8. 본당 성서 공부 질문 사항

-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성서 공부를 본당 홈페이지 링크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ible-study_/에서 녹음 파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반장님이나 질문 링크 <https://forms.gle/EUiYKfnTfgku49ff7>를 통해서 성서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주님의 현시에 대한 궁금증: 구약에서 하느님의 현시는 자주 목격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셨든지, 아니면 직접 현시하셨던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시는 왜 최근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는지 궁금합니다.

A 현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도 하느님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발현을 표현하신듯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현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의 시대 이후에 교회 안에서 가장 빈도수 높게 발현하시는 분은 성모님입니다.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 주시는 메시지는 성경만큼 가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체 성혈의 기적도 세계 각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보편교회로 꾸준하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 개인의 사적 체험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의 계시만을 공적 계시로 여기고 이후의 계시는 교회가 판단하여 그것을 공적 계시로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Q **하느님의 시험에 대한 궁금증:**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행동에 만족하셔서 아들 이사악을 죽이기 직전 천사로 하여금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왜 시험에 들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한건 악마였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하는 것은 나쁜 것으로 묘사되고 (성경 다른 부분에도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나쁘게 묘사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있는데, 왜 주님은 사람을 시험해도 되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을 시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은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되고 너희는 안된다는...

A 시험과 유혹은 구약의 시대에는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으로 들어가면서 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바뀌면서 유혹은 나쁜 것이라고 여기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지혜문학 욥기에서 욥에 대한 하느님의 시험은 가장 가혹에 보이는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시대에는 그러한 신의 유혹과 시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느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선택을 인간에게 맡기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의 섭리 안에 존재하지만, 그 섭리 안에서 인간의 자유가 온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그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도 악마의 자유에 속하고 그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도 인간 예수의 자유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이 그 모든 자유를 존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들이 하느님의 섭리를 벗어난 것은 아니고요.

누가 누구를 시험한다는 것, 그 자체를 꼭 나쁜 것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서의 어떤 부분에서 시험을 나쁜 것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서는 대립되는 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대립의 가운데에서 복음의 정신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야곱과 에사우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 야곱이 에사우의 말아들 권리를 가로채는 부분에서 왠지 야곱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에사우는 사냥꾼,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묘사되어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좀 더 대우를 받고 장자로서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A 동생이 장자권을 차지하는 창세기의 형태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상황을 대변하는 면도 있습니다. 다윗왕도 장자가 아니었고 솔로몬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왕정 시대의 사정을 창세기에 투영해서 왕들의 사정을 대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서의 매력입니다. 신앙의 선조도 분명 한갓 인간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쳐서 다시 형 에사우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선조의 모습이 아닐까요?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네방네 메아리

- 식사 전후 기도를 잘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AA2, 3)
- “은사”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누구든지 은사를 받고 태어났음을 감사하며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겠습니다. (CT)
- “활동은 여러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깨달았습니다. (CT)
-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을 때의 초심을 잊지 말기로 다짐해 봅니다. (CT)
-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씀을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CT)
-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오롯이 의탁하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NV1)
-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NV1)
- 우리 각자는 주님께 받은 талан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 말씀을 따라 사랑에 기반한 봉사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RC2)
- 성령의 힘으로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RC2)
-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매주 새롭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힘으로 새 힘을 얻어야겠다고 묵상해 봅니다. (RC2)
- 우리 각자 다른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성령 아래 머물며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RC2)
- 세상의 평화와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에서 오는 당당함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RC3)
-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두려움에 갇혀 사는 것 같아 성령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RC3)
- 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반원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RC3)
- 목주기도 한단씩 바칠 때마다 우리반에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기로 하였습니다. (TR2)
- 우리 본당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주일학교 미사를 집전해 주시는 미국 신부님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관심을 표현하도록 합시다. (TR2)

10.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가톨릭 생활성가 셀라책 217 번 **‘성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217

성 체

E C#m A Am E

나의 마음 속에 알 수 없는 - 또 다른 나 하나 있어

5 E C#m A B E

그대의 밝은 미소를 - 바라보기엔 - 이젠 너무 힘이 - 들어 -

9 E C#m A Am E

불꺼진 성당 안 - 십자가 아래서 - 무릎 - 꿇고 기도할 - 때 -

13 E C#m A B E

내 마음 깊은 곳에서 - 들려오는 - 낮익은 그대의 - 음 - 성 -

17 A E A E E7

너희는 모두 - 이 빵을 -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 바 칠 내 - 몸 이니

21 A E A B

너희는 모두 - 이 잔을 - 받으라 너희와 내가 맺은 - 약속 이니 - -

25 E E/D# C#m A B

- - 그리스도의 - 몸 - 그리스도의 사랑 -

29 E E/D# C#m A B

빛이 없는 어두운 - 세상이 오더라도 - 서로 사랑하여 - 라 -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첫영성체 감사의 글

- 이번 첫영성체를 위해 도와주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니엘이 천주교 신자로서 항상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첫영성체를 받게 되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강명준 다니엘 가정)
- 주님 승천 대축일에 많은 신자분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아이들이 첫영성체를 모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히 지혜롭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축하해 주신 모든 분과 지도해 주신 선생님,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주신 신부님, 그리고 함께 준비해 주신 룸맘님과 학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다나 아녜스 가정)
- 아이가 커서 생각해도 기억에 소중하게 남을 행복한 첫영성체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부모님들, 주일학교선생님, 시몬신부님, 축하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김민아 로사 가정)
- 첫영성체를 축하해 주신 모든 신자분과 신부님, 홍영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년간 미시간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첫영성체를 이곳에서 하게 되어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뜻깊었습니다. 첫영성체를 함께한 모든 친구들이 하느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민지오 스테파노 가정)
- 딸아이의 첫영성체를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홍영지 선생님, 본당 오승수 신부님, 주일 학교, 기도 해주신 본당 신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1명의 아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하느님의 은총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박민서 엘리시아 가정)
- 사랑하는 아들 박예빈 요나의 첫영성체를 축하합니다. 가족이 같이 미사 드리는 소중한 시간에 함께 성체를 모실 수 있어 행복합니다. 첫영성체 교리와 준비를 같이 한 3학년 친구들, 선생님, 신부님, 학부모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박예빈 요나 가정)
- 우선 저희 아들 지호 패트릭과 스무명 아이들의 첫 영성체를 축하합니다. 역대급 규모라 불렀던 만큼 많은 아이들을 이끌고 지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텐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신 홍영지 막달레나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고생해 주신 룸맘 니나 자매님과 신부님, 이밖에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체 모심의 의미를 알고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박지호 패트릭 가정)
- 가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소중했습니다. 변지원 라파엘을 비롯한 모든 첫 영성체를 받아들인 친구들이 주님의 넓은 사랑 안에서 건강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변지원 라파엘 가정)
- 첫영성체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게 기도문을 외우며 투덜거리긴 했지만 끝까지 잘 해낸 유현승 미카엘에게 감사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유현승 미카엘 가정)
- 유아세례로 신앙의 씨를 뿌리고 첫영성체를 통해 그 새싹을 보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영성체를 받은 아이들이 견진이라는 첫 열매를 맺을때까지 지금처럼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사랑스런 눈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또 그동안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이서윤 클라우디아 가정)

- 성당에 가면, 간식을 먹고 친구들과 노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자라온 아이에게, 올 한해는 조금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순신이에게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일도, 고해성사를 하는 일도 모든 것들이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함께 해준 친구들과 선생님들, 시몬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길 기도합니다. (이순신 프란치스코 드 살 가정)
- 모든 성당 가족들과 함께 첫영성체 예식을 잘 마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총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은수 라파엘라 가정)
- 첫영성체 받은 아이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큰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래도록 첫영성체의 기억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태성 프란치스코 가정)
- 아이들이 첫영성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해주신 신부님, 주일학교 선생님, 학부모님들, 또 한마음으로 함께 축하해주신 많은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1명 아이들이 사랑 넘치는 우리 성당 공동체 일부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이현우 요셉 가정)
- 아이들의 첫영성체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성체성사를 거룩하게 여기며 우리 주 하느님을 열성적으로 섬기고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이효주 가브리엘라 가정)
-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요한 12.36) 저희 올리비아가 믿음 가득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정아 올리비아 가정)
- 이사를 오자마자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첫영성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첫영성체를 통하여 저희 아이들이 하느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장현우 루카 가정)
- 아이들의 첫영성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대에 올라가 성체를 모신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전아린 율리아나 가정)
- 집에서 기도문을 외우며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 같아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첫영성체를 받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던지. 앞으로 아이들이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께 기도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첫영성체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지욱 라파엘 가정)
- 본당의 많은 신자분들의 기도와 축하 덕분에 아이들이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영성체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첫영성체를 통해 신앙의 뿌리가 조금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길 바랍니다. 준비기간 내내 애써주시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신 홍영지 선생님과 첫영성체의 거룩한 순간을 함께해 주신 오승수 시몬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최지훈 루카 가정)
- 전 신자들 모두 손을 올려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름다운 은총 속에 사랑받으며 첫영성체를 모실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대에 올라가 거룩하게 양영성체를 모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신부님의 큰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 기쁘게 기억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홍은하 이레네 가정)